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와의 관련성

지도 서

일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질병관리학과

우 승 현

감사의 말씀

몇 번의 낙방으로 시작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과의 인연도 졸업으로써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동안 힘들었던 과정도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 초석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가르침과 쉼을 주신 서 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의 논문이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 예방 치과학교실의 권호근 교수님과 통계부분을 담당하여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남정모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기까지 관심을 쏟아주신 최연희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신 유태영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자료 입력을 도와주신 위생사 전명자, 조은주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시고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준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특히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머니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반려자인 내 아내와 건강하고 이쁘게 자라고 있는 지민이에게 아빠의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 승 현 올림

차 례

국문요약	iii
I. 서 론	1
II. 연구방법	4
1. 연구대상	4
2. 조사방법	5
3. 변수의 선정과 측정	5
4. 연구모형	8
5. 분석방법	9
III. 결 과	10
1. 어머니와 자녀의 구강건강행위	10
2.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수준	12
3.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과 행위와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와의 관련성	15
4.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와의 관련성	18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1
IV. 고 찰	23
V. 결 론	28
참고문헌	30
부 록	35
영문초록	39

표 차 례

표 1. 학년별-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설문응답자수	4
표 2. 조사한 변수와 자료 분석시 범주	6
표 3. 어머니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	11
표 4. 어머니의 불소에 대한 지식	12
표 5. 어머니의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13
표 6. 구강건강 지식에 대한 정답점수의 분포	14
표 7. 어머니의 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칫솔질과의 관련성	16
표 8. 어머니의 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예방목적 치과방문과의 관련성	17
표 9.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칫솔질 횟수와 관련성	19
표 10.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예방목적 치과 방문과의 관련성	20
표 11.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 행위, 사회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22

그 림 차 례

그림 1. 연구의 틀	8
-------------------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 구강건강 행위 및 사회 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서울 마천 초등학교 4, 5, 6학년 어린이 8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마천 초등학교를 통하여 설문 대상자의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개별자기기입식으로 조사, 회수하였다. 응답자는 658명이었으며 어머니의 불소와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칫솔질의 횟수, 정기검진이나 예방목적의 치과 방문의 횟수, 치실 사용여부, 연령, 직업유무,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자녀의 구강 건강행위인 칫솔질의 횟수, 정기검진이나 예방목적의 치과 방문의 횟수에 대한 관련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행위 그리고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이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수준은 자녀의 칫솔질의 횟수와 예방목적의 치과 방문 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 어머니의 불소에 대한 지식수준도 자녀의 칫솔질의 횟수와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둘째, 어머니의 칫솔질 횟수와 자녀의 칫솔질횟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횟수와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어머니의 예방 목적의

치과 방문의 횟수와 자녀의 칫솔질 횟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의 횟수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치실 사용여부는 자녀의 칫솔질 횟수와 예방 목적의 치과방문 횟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칫솔질의 횟수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교육수준, 월 평균소득과 자녀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횟수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넷째,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행위, 그리고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구강건강행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예방목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예방목적의 치과방문도 많았고 칫솔질의 횟수도 많았으며, 치실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도 칫솔질을 많이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많을수록 자녀의 구강건강 예방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어머니란 자녀를 가진 여성을 지칭하며 모성보건이라는 용어가 여성보건이라는 용어와 구별되어 사용되는 이유는 어머니가 여성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특별한 인류학적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특수성 때문에 모성보건은 영유아 보건이나 소아보건을 합한 모자보건의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취급되어왔다(김두희,1995). 어머니의 구강보건 형태에 관한 연구로는 Chen과 Tatsuok(1984)가 구강건강 신념모델을 사용하여 구강건강 신념과 구강예방행위간의 관련성을 보고하면서 구강건강신념 중에서도 어머니가 예방행위에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고, Freeman과 Lambert(1965)는 어머니의 예방행위와 소득, 교육, 직업과는 상관성이 있으나 예방목적의 방문과 상수도 불화의 찬성투표유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구강건강관련 행위란 인간의 구강건강이나 구강질병과 관련된 행위를 일련의 연속과정으로 파악하여 하나의 구강건강 행위체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서, 건강한 상태에서 행하는 질병예방행위, 질병에의 이환이 의심되는 증상발현상태에서 행하는 질병행위, 질병에의 이환이 진단된 상태에서 행하는 아픈자의 역할행위로 대별된다(이홍수 등,1996). 구강관련 행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사회구조적인 요인, 문화적 요인, 사회심리적인 요

인 등이 있는데 지식과 태도가 행동을 좌우한다고 인과적 모형을 구성하는 연구모형을 ‘지식, 태도 및 실천에 대한 연구모형’이라 한다(공만석 등,1994). 구강건강행위는 개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터전이며 구강건강 측면에서도 공중 구강보건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어머니는 가족의 건강을 보살피는 특수하면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구강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재화 등, 1996). 선행 연구에서도 어린이들의 구강예방행위를 생활화하기 위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프로그램을 시행시, 부모의 참여가 있었던 어린이들 집단이 부모의 참여가 없었던 어린이들보다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구강상태의 비교 시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이혜영,1994). Chen(1986)은 가족의 수입, 어머니의 직업, 나이, 교육정도, 또한 어머니의 건강신념과 예방목적의 구강행동이 자녀의 칫솔질, 치실의 사용 그리고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박득희 등(1994)도 어머니의 건강신념이 자녀의 건강신념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예방적 치과방문 횟수에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공만석 등(1994)은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수준과 구강건강행동이 자녀의 구강보건 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어머니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구강보건행태가 아동의 구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 되어있을 뿐 어머니의 자신의 구강 보건 행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모성구강보건의 영아구강보건을 포함한 모자구강보건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여지나 아동의 구강 보건 행태에 모친이 영향이 심대하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결국 아동의 구강보건 행태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위해서도 어머니 자

신의 구강보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공만석 등,1996). 이흥수(1996;1997)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구강건강에 관련된 구강건강 신념보다 자녀의 구강건강에 대한 구강건강 신념이 더욱 확고하였으며 자녀의 치과 의료이용에는 어머니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자녀의 치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치과의료이용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한 초등학교의 고학년 학생들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어머니의 구강건강 행동과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이 자녀의 실제 구강건강 행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불소와 치주질환에 대한 구강건강 지식과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둘째, 어머니의 구강건강 행위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를 분석한다.

셋째,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구강건강행위를 분석한다.

넷째,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행위 그리고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이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마천 초등학교 4, 5, 6학년생과 이들의 학부모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아동 수는 4학년 298명, 5학년 287명, 6학년 260명 이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442명이고 여학생이 403명으로 총 845명이었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의 수를 보면 4학년이 236명, 5학년이 206명, 6학년이 216명으로 총 845명중에서 658명인 77.8%가 응답하였다.

표 1. 학년별-성별에 따른 조사 대상자 및 설문 응답자수 단위 :명(%)

	설문 응답자수	설문 무응답자수	전 체
4학년 남	119(75.3)	39 (24.7)	158(100.0)
여	117(83.5)	23 (16.5)	140(100.0)
계	236(79.1)	62 (19.9)	298(100.0)
5학년 남	99(65.1)	53 (34.9)	152(100.0)
여	107(79.2)	28 (19.8)	135(100.0)
계	206(71.7)	81 (28.3)	287(100.0)
6학년 남	100(75.7)	32 (24.3)	132(100.0)
여	116(90.6)	12 (9.4)	128(100.0)
계	216(83.0)	44 (17.0)	260(100.0)
전체	658(77.8)	187 (22.2)	845(100.0)

2. 조사 방법

2000년 5월에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과 어머니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마천 초등학교를 통하여 배포하였으며 학생과 어머니가 각각 개별자기입방식으로 작성하게 한 뒤 2일 후에 마천 초등학교를 통하여 회수하였다.

조사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한 것은 어머니의 구강건강 행위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는 연령에 속하고 기존연구에서 지역간 또는 국가간 비교시 유용하기 때문이다.

3. 변수의 선정과 측정

1) 변수의 선정

조사한 변수들을 보면 어머니의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행위, 그리고 불소와 치주 질환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수준 및 사회인구학적인 요인들과 자녀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행위 즉, 칫솔질 횟수와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의 횟수를 파악하였다.

표2. 조사한 변수와 자료분석시 범주

조사한 변수	자료분석시 범주
종속변수 자녀의 구강건강행위 하루평균 칫솔질의 횟수 1년간 정기검진이나 예방목적 치과방문경험	2회이하, 3회이상 있음, 없음
독립변수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수준 불소의효과 및 역할에 대한 지식 치주질환에 대한 인지	저/0-2, 중/3-4, 고/5-7 저/0-3, 중/4-5, 고/6-7
어머니의 구강건강행동 하루평균 칫솔질의 횟수 1년간 정기검진이나 예방목적 치과방문경험 치실사용경험	2회이하, 3회이상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요인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30-39세, 40세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99만원이하, 100만원이상 199만원이하, 200만원이상 유, 무

2) 변수의 측정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에 대한 변수는 최현희(1998), 이홍수(1996), 백대일(1994) 등의 연구를 보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구강건강행위의 변수는 칫솔질 횟수, 지난 1년간 치과방문 횟수로서 치료목적의 방문횟수, 예방목적의 방문횟수, 그리고 정기점검의 방문횟수 등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고, 어머니의 치실 사용여부 또한 조사하였다. 여기서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은 조사시점까지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치아나 구강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한 경우를 의미하며 검진목적의 치과방문은 충치나 잇몸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과를 방문한 경우를 뜻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예방목적의 치과방문과 정기검진을 위한 치과방문을 묶어서 예방을 위한 치과방문으로 정의하였다.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인 불소와 치주질환에 대한 질문항목은 Lang(1989)이 개발한 7개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

4.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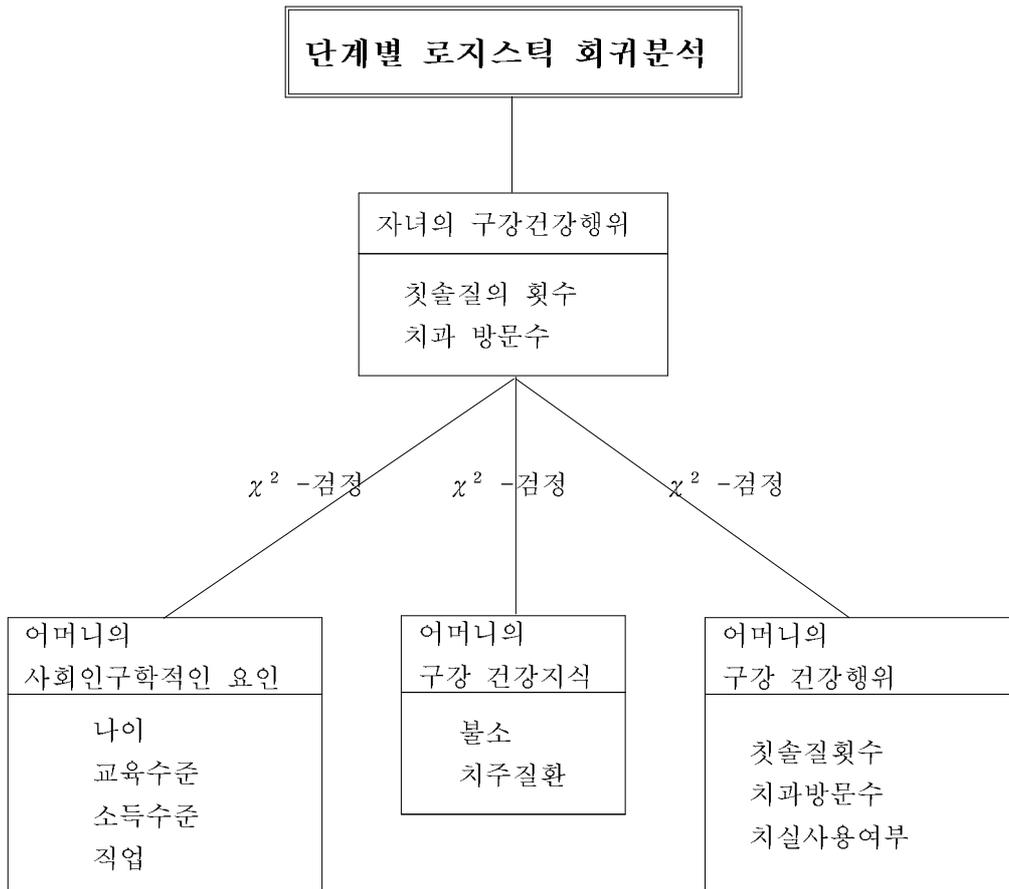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틀

5. 분석 방법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에 대하여 불소에 대한 정답자수와 치주질환에 대한 정답수의 수준에 따라 각각 ‘고, 중, 저’ 3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3개의 집단의 빈도를 보고, 어머니의 불소와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수준에 의해 나뉜 3개의 집단과 자녀의 칫솔질 횟수와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횟수와 관련성을 카이제곱 검정(χ^2 -tes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칫솔질의 횟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치실의 사용여부와 자녀의 칫솔질의 횟수, 예방목적의 치과 방문과의 관련성을 카이제곱 검정(χ^2 -tes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인 어머니의 나이,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소득수준과 자녀의 칫솔질의 횟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횟수와 관련성도 카이제곱 검정(χ^2 -test)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든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칫솔질의 횟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치실 사용여부, 불소와 치주질환에 대한 구강건강 지식,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종속변수인 자녀의 칫솔질의 횟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의 횟수와 관련성을 단계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모든 통계방법은 SAS(Sa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Ⅲ. 결 과

1. 어머니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

하루평균 3회이상 칫솔질을 하는 자녀는 71명, 2회이하 칫솔질을 하는 자녀는 554명이었고 정기검진이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하는 자녀는 457명, 방문을 하지 않는 자녀는 164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하루평균 2회 이하로 칫솔질을 하는 어머니는 377명, 3회이상 칫솔질을 하는 어머니는 281명이었고 정기검진이나 예방목적의 치과 방문을 하는 어머니는 655명, 방문을 하지 않는 어머니는 355명으로 조사되었고, 치실을 사용하는 어머니는 123명이고 사용을 하지 않는 어머니는 535명이었다.

표 3. 어머니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

단위: 명(%)

변 수	분 류	빈 도(%)
자녀의 구강건강행위		
1. 하루평균 칫솔질 횟수	2회이하	554(88.6)
	3회이상	71(11.4)
2. 정기검진이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한다	457(72.7)
	안한다	164(27.3)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		
1. 하루평균 칫솔질 횟수	2회이하	377(57.3)
	3회이상	281(42.7)
2. 정기검진이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한다	655(54.2)
	안한다	355(45.8)
3. 치실의 사용여부	한다	123(18.7)
	안한다	535(81.3)

2.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수준

불소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정도를 보면 7개의 항목 중에서 “치아의 외피층을 강하게 하여 불소가 치아 우식 예방을 한다”는 항목이 정답자가 5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소가 치아의 미백작용을 한다”는 항목에 정답자가 516명, “불소는 입안의 세균 수를 감소시킨다”라는 항목의 정답자가 363명으로 나타났으며, “불소가 치아를 청소한다”는 항목에 오답자 수가 431명으로 가장 많아서 불소의 기능에 대해서 올바르게 못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불소는 치아와 뼈에 중요한 요소라는 항목에 대한 오답자가 339명이었다. 그리고 모른다에 대한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항목은 “불소는 치태가 치아에 붙어있는 위치를 알려 준다”였으며 두 번째로는 “불소가 치아와 뼈에 중요한 영양소이다”라는 항목이었다(표 4).

표 4. 어머니의 불소에 대한 지식

단위: 명(%)

	정답자	오답자	모른다	계
1. 불소는 치아외피층을 강하게 하여 충치에 잘 안걸리게 한다.	522(79.3)	35(5.3)	101(15.3)	658(100.0)
2. 불소는 치태가 치아에 붙어 있는곳을 알려준다.	330(50.2)	89(13.5)	239(36.3)	658(100.0)
3. 불소는 치아를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118(17.9)	431(65.5)	109(16.6)	658(100.0)
4. 불소는 치아의 색깔을 하얗게 만든다.	516(78.4)	45(6.8)	97(14.7)	658(100.0)
5. 불소는 입안의 세균수를 감소시킨다.	363(55.2)	129(19.6)	166(25.2)	658(100.0)
6. 불소는 치아와 뼈에 중요한 영양소이다.	146(22.2)	339(51.5)	173(26.3)	658(100.0)
7. 불소는 초기상태 충치가 회복되도록 돕는다.	232(35.3)	254(38.6)	172(26.1)	658(100.0)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정도를 살펴보면 “치주질환이 심해지면 치아주변의 골조직까지 망가뜨린다”로 전체 응답자 658명중 정답자 569명으로 치주질환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으며 치주질환의 초기증상에 대해서도 정답자 522명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오답자가 많은 항목으로는 칫솔질과 치실의 사용목적에 대한 물음으로 291명의 오답자가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치아 발거의 주원인인 성인 구강병중 치주질환임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오답자가 225명이었다. 그리고 모르는 대답의 항목에서는 “치주질환은 바이러스 때문이다”와 “잇몸병의 원인은 치태 때문이다”라는 항목이 많았는데 이것은 치주질환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표 5).

표 5. 어머니의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단위: 명(%)

	정답자	오답자	모른다	계
1. 성인이 되어서 이를 빼게 되는 것은 잇몸병보다 충치 때문이다.	344(52.3)	225(34.2)	89(13.5)	658(100.0)
2. 치주질환이 심해지면 치아주변의 골조직까지 망가뜨린다.	569(86.5)	29(4.4)	60(9.1)	658(100.0)
3. 칫솔질과 치실사용은 충치예방보다 잇몸병예방에 더 중요하다.	275(41.8)	291(44.2)	92(14.0)	658(100.0)
4. 잇몸병의 원인은 치태 때문이다.	381(57.9)	118(17.9)	159(24.2)	658(100.0)
5. 치주질환은 바이러스 때문이다.	259(39.4)	162(24.6)	237(36.0)	658(100.0)
6. 치주질환은 약국에서 사먹는 약으로 예방된다.	447(67.9)	86(13.1)	125(19.0)	658(100.0)
7. 칫솔질시 피가나는 것은 치주질환의 초기증상이다.	522(79.3)	49(7.4)	87(8.7)	658(100.0)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인 불소와 치주질환에 대한 각각의 문항 7개에 대한 정답자의 점수분포는 표 6과 같다. 불소에 대한 지식과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의 관련성에 대하여 스피어만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는데 상관계수가 0.27로 상관성이 낮아 2개 부분에 대해 각각 분석을 시행하였다. 불소에 대한 지식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38 ± 1.47 이고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지식점수는 4.25 ± 1.48 이었다. 불소에 대한 지식 부분은 0-2점, 3-4점, 5-7점으로 나누어 각각 저(Low), 중(Middle), 고(High)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부분은 0-3점, 4-5점, 6-7점으로 나누어 저, 중, 고의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표 6).

표 6. 구강건강지식에 대한 정답점수의 분포

점수	불소에 대한 지식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집단	빈도 (%)	집단	빈도 (%)
0	저	41 (6.2)	저	17 (2.6)
1		35 (5.3)		19 (2.9)
2		83 (12.6)		38 (5.8)
3	중	140 (21.3)		96 (14.6)
4		221 (33.6)	중	173 (26.3)
5	고	110 (16.7)		193 (29.3)
6		24 (3.6)	고	97 (14.7)
7		4 (0.6)		25 (3.8)

3.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과 행위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와의 관련성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 및 행위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인 칫솔질의 횟수와의 관련성을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어머니의 구강 건강 지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구강건강 행위 즉, 칫솔질의 횟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치실 사용의 여부와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 보다는 어머니의 구강건강 행위에 자녀들은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표 7).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 및 행위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인 예방목적의 치과 방문 수와의 관련성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구강 건강지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구강건강 행위 즉, 칫솔질의 횟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치실 사용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표 8).

표 7. 어머니의 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칫솔질 횟수와의 관련성

단위: 명(%)

	자녀의 칫솔질 횟수			p-값 *
	2회이하	3회이상	계	
불소에 대한 지식				
저	135(90.0)	15(10.0)	150(100.0)	0.721
중	300(87.7)	42(12.2)	342(100.0)	
고	119(89.5)	14(10.5)	133(100.0)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저	144(91.1)	14(8.9)	158(100.0)	0.314
중	312(88.6)	45(11.4)	352(100.0)	
고	98(85.2)	12(14.8)	115(100.0)	
칫솔질 횟수				
2회 이하	345(96.4)	13(3.6)	358(100.0)	0.000
3회 이상	209(78.8)	58(21.7)	267(100.0)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없다	440(90.1)	46(9.5)	486(100.0)	0.008
1회이상	114(82.0)	25(18.0)	139(100.0)	
치실 사용여부				
한다	97(83.6)	19(16.4)	116(100.0)	0.084
안한다	457(89.8)	52(10.2)	509(100.0)	

* p 값은 χ^2 -검정으로부터 계산되었음.

표 8. 어머니의 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예방목적 치과방문과 관련성

단위: 명(%)

	자녀의 예방목적 치과방문			p-값 *
	안한다	한다	계	
불소에 대한 지식				
저	113(71.0)	46(28.9)	159(100.0)	0.918
중	261(72.37)	100(27.7)	361(100.0)	
고	101(73.2)	37(26.8)	138(100.0)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저	120(70.6)	50(29.4)	170(100.0)	0.408
중	261(71.3)	105(28.7)	366(100.0)	
고	94(77.0)	28(23.0)	122(100.0)	
칫솔질 횟수				
2회 이하	289(76.7)	88(23.3)	377(100.0)	0.004
3회이상	186(66.2)	95(33.8)	281(100.0)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없다	416(80.8)	99(19.2)	515(100.0)	0.000
1회이상	59(41.3)	84(58.7)	143(100.0)	
치실 사용여부				
한다	83(67.5)	40(32.5)	123(100.0)	0.238
안한다	392(73.3)	143(26.7)	535(100.0)	

* p 값은 χ^2 -검정으로부터 계산되었음.

4.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와의 관련성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칫솔질의 횟수와의 관련성을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었다(표 9).

그러나, 자녀의 예방목적 치과방문 횟수와의 관련성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월 평균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표 10).

표 9.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첫솔질횟수와의 관련성

단위: 명(%)

	자녀의 첫솔질횟수			p-값 *
	2회 이하	3회이상	계	
어머니의 연령				
30-39세	387(89.4)	46(10.6)	433(100.0)	0.481
40세이상	161(87.0)	24(13.0)	185(100.0)	
계	548(88.7)	70(11.3)	618(100.0)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458(88.6)	59(11.4)	517(100.0)	0.965
전문대졸이상	79(87.8)	11(12.2)	90(100.0)	
계	537(88.5)	70(11.5)	607(100.0)	
월평균소득				
99만원 이하	94(89.5)	11(10.5)	105(100.0)	0.781
100만원이상				
199만원이하	297(88.9)	37(11.1)	334(100.0)	
200만원이상	142(87.1)	21(12.9)	163(100.0)	
계	533(88.5)	69(11.5)	602(100.0)	
어머니의 직업유무				
있다	328(88.9)	41(11.1)	369(100.0)	0.860
없다	222(88.1)	30(11.9)	252(100.0)	
계	550(88.6)	71(11.4)	621(100.0)	

* p 값은 χ^2 -검정으로부터 계산되었음.

표 10.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예방목적 치과방문과의 관련성
단위: 명(%)

	자녀의 예방목적 치과방문			p-값 *
	안한다	한다	계	
어머니의 연령				
30-39세	324(71.0)	132(29.0)	456(100.0)	0.489
40세이상	143(74.1)	50(25.9)	193(100.0)	
계	467(72.0)	182(18.0)	649(100.0)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399(73.5)	144(26.5)	543(100.0)	0.072
전문대졸이상	60(63.8)	34(36.2)	94(100.0)	
계	459(72.0)	178(28.0)	637(100.0)	
월평균소득				
99만원 이하	91(82.0)	20(18.0)	111(100.0)	0.002
100만원이상				
199만원이하	257(73.2)	94(26.8)	351(100.0)	
200만원이상	107(63.3)	62(36.7)	169(100.0)	
계	455(72.1)	176(27.9)	631(100.0)	
어머니의 직업유무				
있다	273(70.9)	112(29.1)	385(100.0)	0.474
없다	197(73.8)	70(26.2)	267(100.0)	
계	470(72.1)	182(27.9)	652(100.0)	

* p 값은 χ^2 -검정으로부터 계산되었음.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금까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와 관련된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 구강건강 행위,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들 상호간의 작용을 통제된 상태에서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인 칫솔질의 횟수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로는 어머니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방목적으로 치과 이용을 경험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경험하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하루 칫솔질을 3회 이상 할 확률이 6.9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실 사용여부는 p-값이 0.097로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어머니의 자녀보다 치실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하루 평균 칫솔질을 3회이상 할 확률이 1.86배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인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는 예방목적의 치과방문과 소득수준이 200만원이상인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방목적으로 치과방문을 경험하지 않는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예방목적의 치과 방문을 경험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5.61배나 치과를 예방목적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200만원이상인 가정의 자녀는 소득수준이 99만원이하인 가정의 자녀보다 치과에 2.05배나 더 방문하는 것으로 나왔다.

표 11.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교차비	p-값
종속변수 자녀의 칫솔질 횟수¹				
어머니의 예방목적치과방문여부	1.933	0.328	6.91	0.000
어머니의 치실사용여부	0.557	0.317	1.87	0.079
종속변수 자녀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²				
어머니의 예방목적치과방문여부	1.726	0.127	5.61	0.000
소득수준이 200만원이상인 집단 ³	0.722	0.308	2.05	0.019

1. 칫솔질의 횟수는 2회 이하인 집단이 기준집단
2. 예방목적의 치과방문경험은 없다는 집단이 기준집단
3. 소득수준이 99만원 이하인 집단이 기준집단

IV. 고 찰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마천 초등학교 4, 5, 6학년생 대상으로 2000년 4월에 어머니에게 설문조사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시행하여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과 행위 및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을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수준을 나타내는 불소와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수준과 구강건강 행위를 나타내는 칫솔질의 횟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횟수, 그리고 치실사용의 여부를 조사하였고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에서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소득수준이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 즉, 칫솔질의 횟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는 강서구에 위치한 마천 초등학교의 4, 5, 6학년의 아동과 그 아동의 학부모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초등학교 아동과 어머니를 대표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작으므로 추후 연구 시에는 좀더 광범위한 표본의 추출이 되어야겠다.

구강건강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의 결정인자를 규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사회심리학적 모형에 속하는 건강신념모형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구강건강 관련행위를 구강건강 신념모형으로 설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점은 추상적인 구강신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는

것이다(이홍수 등, 1996) 그리고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수준과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이홍수 등, 1996;백대일, 1993;이혜영 등, 1994;이재화 등, 1996) 구강건강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설문 문항들이 정립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ng등(1989)이, Glasrud등(1988)과 Loupe(1983)의 연구에서 사전측정을 거쳐 만들어진 설문항목을 수정 보완한 후 미국의 미시간주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사용하였던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서울시 마천 초등학교 어머니의 지식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설문 항목의 난이도를 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 나라에 적용한 것이 본 연구에 제한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건강 신념과 건강 행위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신념이 행동에 선행한다는 인과모형을 구성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신념의 결과가 행동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으나 단면적인 연구에서는 그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순영 등,1995).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인과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횡단연구보다 종단연구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 Chen(1986)은 어머니의 세대 소득, 직업, 교육 수준이 자녀의 칫솔질 횟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Rayner는 자녀의 구강보건 형태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계층별 행위차이를 지적하였다. 또한 Becker(1972)등도 어머니의 치료에 대한 태도, 동기등

이 자녀의 구강진료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의 연구를 보면 오윤배 등(1994)도 어머니의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연구를 시행하고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족중 최 연소자연령, 소득 중 저축율의 비율등이 자녀의 치과 의료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주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칫솔질 횟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저자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세대의 월 평균소득, 어머니의 직업유무를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어머니의 연령은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결과로 나왔다. 그리고,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은 자녀의 예방목적의 치과 방문과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정의 경제력이 여유롭게 됨과 자신의 건강과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건강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직업 유무와의 관련성은 공만석(1996) 등은 취업한 모친일수록 전반적인 치과의료이용이 적으며 예방목적의 치과 방문도 적으며 칫솔질 빈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어떠한 변수와도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구강건강행동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다른 요인들보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연구(Rayner,1970;Lee,1978)와 같은 연구 결과로 어머니의 행동이 자녀의 건강에 대한 규범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hen(1986)은 치실의 사용여부는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치실의 사용자가 전체 18.7%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치질의 사용방법과 유용함을 알릴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불소에 대한 지식수준은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수준에 비해 정답수에 대한 평균에서 1.0정도의 차이가 났다. 이것은 불소의 작용이나 효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재화(1996) 등은 가정주부의 불소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불소가 우식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아는가에 대해 '안다, 모른다'의 형식으로 질문하였는데 '안다'의 경우가 91.6%로 상당히 인지도가 높다고 밝혔으나곽정민(1996) 등의 학교집단불소용액양치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지율은 37.7%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불소에 대한 지식수준은 단지 우식예방효과가 있다는 단편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Lang(1989)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7개의 항목 중 오답자는 4개항목, 모른다는 5개항목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은 자녀의 구강건강행위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행위라는 일차원적인 관계만을 분석한 결과라고 생각되고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구강건강 태도나 신념(강명신,1994;박득희,1994;이흥수1996)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는 자녀의 구강건강에 대한 어머니의 구강건강문화가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최연희,1997).

그리고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행위 그리고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이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와의 관련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이 결과 자녀의 칫솔질횟수에 대하여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어머니의 예방

목적의 치과방문으로 교차비가 6.91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방목적으로 치과 이용을 경험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경험하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하루 평균 칫솔질을 3회이상 할 확률이 약 7배정도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치실 사용여부는 p-값이 0.09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어머니의 자녀보다 치실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하루 평균 칫솔질을 3회이상 할 확률이 더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인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에 대해 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어머니의 예방목적의 치과 방문으로 교차비가 5.61 그리고 가계소득이 200만원이상인 집단으로 교차비가 2.05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방목적으로 치과방문을 경험하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예방목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치과에 방문할 확률이 약 6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고 소득수준이 2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는 소득수준이 99만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보다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으나 구강보건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어머니와 자녀를 함께 포함한 모자구강보건사업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론적 배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구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향은 광범위하고 일률적인 구강보건사업보다는 우식발생 위험이 높은 개인을 비롯하여 집단을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찾아내어 그 개인이나 집단만을 대상으로 모자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구강 건강지식과 구강건강 행위 및 사회 인구학적인 요인이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 마천 초등학교 4, 5, 6학년 어린이들 845명과 이 학생들의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개별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고 회수하였다. 응답자는 658명이었으며 어머니의 불소와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칫솔질 횟수, 정기검진이나 예방목적의 치과 방문의 횟수, 치실 사용의 여부와 자녀의 칫솔질 횟수, 정기검진이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횟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어머니의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수준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인 칫솔질의 횟수와 예방목적의 방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 어머니의 불소에 대한 지식수준도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인 칫솔질의 횟수와 예방목적의 방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둘째, 어머니의 구강건강 행위인 칫솔질 횟수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인 칫솔질횟수와 예방목적의 구강건강 행위와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어머니의 구강건강 행위인 정기검진이나 예방 목적의 치과 방문의 횟수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인 칫솔질 횟수와 예방목적의 치과방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구강건강 행위인 치실 사용여부는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인 칫솔질 횟수와 예방 목적의

치과방문 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인 칫솔질의 횟수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교육수준과 월 평균소득과 예방목적의 치과 방문 횟수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행위, 그리고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예방목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예방목적의 치과방문도 많았고 칫솔질의 횟수도 많았으며, 치실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도 칫솔질을 많이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구강건강 예방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김두희, 이원식. 공중 보건학개론. 학문사, 1993:381-384
- 공만석, 이흥수, 김수남. 모친의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6;20(1):31-53
- 공만석, 이흥수, 김수남. 모친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과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4;18(1):84-94
- 강명신, 김종열, 김형규등. 구강보건인식, 태도, 행동 및 지식도가 치태관련 질환발생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4;18(1):144-168
- 곽정민, 김종배. 학자모의 구강건강 사업에 관한 지식수준과 지지정도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6;20(1):87-106
- 박태근. 모자보건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1-17
- 박득희, 이광희, 김종배. 6세 아동에서 2년 후 우식경험영구치면수 증가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3;17(2):240-267

- 박득희, 이광희. 어머니의 건강 신념이 아동의 건강 신념과 치과의료이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1994;21(1):345-349
- 백대일, 김종배, 문혁수등. 산취근로자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 대한구강보건 학회지 1997;19(2):161-172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편집위원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계축 문화사, 1991; 588-590
- 이순영, 손명세, 남정모. 한국인의 건강관심도, 건강실천행위 및 건강수준간의 구조분석. 예방의학회지 1995;20(4):187-349
- 이흥수. 모친과 아동에서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관련행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6; 20(1):11-30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편집위원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계축문화사, 1995;628-629
- 이재화, 나수정, 김진범. 대도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구강보건 지식과 행동. 1996;20(4):509-529
- 이혜영, 김종배. 서울특별시민의 가정구강보건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4;18(2):526-544

이영준. 다변량 분석. 도서출판 석정, 1993:52

오윤배, 이흥수, 김수남. 모친의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구강건강 신념이 아동이 구강보건형태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4;18(1):62-83

이흥수, 김경희. 전라북도 일부지역 경제활동 여성의 구강보건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7;21(4):701-714

정경균, 김영기, 문창진등. 보건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85-103

채서일, 김범중, 이성근.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학현사, 1992:71-78

최연희, 서일, 권호근.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동과 자녀의 구강건강 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7

Ahberg J, Tuominen R, Murtomaa H. Dental knowledge, attitudes towards oral health care utilization of dental services among male industrial workers with or without an employer-provided dental benefit scheme.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996;24(6):380-400

Antonovsky AS, Kats R. The model dental patient an empirical study of preventive health behavior. Soc Sci Med 1970;(4):367-376

- Bader J. Health services research in dental public health. *J Public Health Dent* 1992;52(1):23-29
- Becker MH, Nathanson CA, Drachman RH, Kirscht JP. Mothers's health belief and children's clinic visits a prospective study. *J Community Health* 1977;3(2):125-135
- Breslow L, Enstrom J. Persistence of health habits and their relationship to mortality. *Preventive Medicine* 1980;9:469-483
- Chen MS, Tatsuoka M.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n women's preventive dental behavior and dental health beliefs. *Soc Sci Med* 1984; 19(9):971-987
- Chen MS. Children's preventive dental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socioeconomic status, health beliefs and dental behaviors. *J Dent Child* 1986;53(March-April):105-109
- Freedman HE, Lambert C. Preventive dental behavior of urban mothers. *J Health Human Behavior*. 1965;6:141-147
- Gochman DS. Some correlates of children's health beliefs and potential health behavior. *J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71;12(June):148-154

Glasrud PH, Frazier PJ. Future elementary schoolteacher's knowledge and opinions about oral health and community programs. J Public Health Dent 1988;Spr48:74-80

Hamilton ME, Coulby WM. Oral knowledge and habits of seni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Public Health Dent 1991;51(4):212-19

Kuhner MK, Raetzke PB. The effects of health beliefs on the compliance of periodontal patients with oral hygiene instruction. J periodontol 1989;60(1):51-56

Rayner JF. Socioeconomic statu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dental health practices of mothers. Am J Pub Health 1970;60(7)1250-1258

Weinstein M, Kegeles S, Lund A. Children's health beliefs and acceptance of a dental prevention activity. J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0;21:59-74

부 록

설 문 지

※ 다음은 어머니께서 구강건강을 위하여 행하시는 바를 묻는 것으로 아래 물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문1. 어머니께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칫솔질을 몇번 하십니까? _____번

문2. 지난 1년간 치과의원이나 치과병원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3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5로 기십시오.

문3. 지난 1년간 몇번 방문 하셨습니까? _____번

문4. 방문하신 목적에 따른 횟수를 각각 써주십시오.

① 치료를 위하여 _____번

② 정기점검을 위하여 _____번

③ 예방치료를 위하여 _____번

④ 기타 ()를 위하여 _____번

- 문8-1. 성인이 되어서 이를 빼게되는 것은
잇몸병보다 충치 때문이다. ()
- 문8-2. 치주질환이 심해지면 치아주변의 골조직까지 망가진다. ()
- 문8-3. 칫솔질과 칫솔사용은 충치예방보다
잇몸병예방에 더 중요하다. ()
- 문8-4. 잇몸병의 원인은 치태 즉 플라그 때문이다. ()
- 문8-5. 치주질환은 바이러스 때문이다. ()
- 문8-6. 치주질환은 약국에서 사먹는 잇몸약으로 예방된다. ()
- 문8-7. 칫솔질시 피가 나는 것은 치주질환의 초기증상이다. ()

※ 다음 문항은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내용입니다.

문9. 어머니의 나이를 적어주십시오. 만_____세

문10. 어머니의 교육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이상

문11. 어머니의 직업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전문직 ② 사무관리직 ③ 자영업 ④ 주부 ⑤ 기타

문12. 귀댁의 월평균 소득액은 얼마나 되시는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50 만원이상 - 99 만원이하 ② 100 만원이상 - 149 만원이하

<Abstract>

The Relations of Mothers'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s Oral Health with Their Children' Attitudes towards Oral Health

Woo, Seung Hyu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l Suh, M. D., Ph. 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concentrates on clarifying the question as to how mothers'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s oral health relate to their children's attitudes towards to oral health and to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Conducted for that purpose was a questionnaire poll on 845 4th, 5th, and 6th graders in Machun Elementary School in Seoul. And further questionnaire forms were distributed to mothers via the subject children of Machun Elementary School. The method of filling the questionnaire depended upon the respondents' individual discretionary way, and the number of the returned questionnaire forms totaled to 658. An X^2 test was performed of the mothers' knowledge of fluorine, peridontal diseases, the number

of toothbrushing, the number of visits to dental clinics for periodic examination or for a prevention purpose , presence or absence of the use of dental floss, age, vocations, educational levels, income levels, and their children's attitudes towards oral health such as the number of toothbrushing, the number of visits to dental clinics for periodical examination or for a prevention purpose. For that purpose, an χ^2 test was carried out. Furthermore,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executed to manifest mothers' knowledge of oral health, attitudes towards oral health, and resolve the question as to how demograph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affect children's attitudes towards their oral health.

The resultant findings were revealed, as follows:

Firs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ere found between mothers' knowledge of peridontal diseases with their children's number of toothbrushing and the number of visits to dental clinics for a prevention purpose. Moreover, mothers' levels of knowledge of fluorine also did not represen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ir children's number of toothbrushing and the number of visits to dental clinics for a prevention purpose.

Second, mothers' number of toothbrushing reflec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ir children's number of toothbrushing and the number of visits to dental clinics for a prevention purpose. Furthermo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was revealed between mothers' number of visits to dental clinics for prevention purpose with their children's number of toothbrushing, the number of visits to dental

clinics for prevention purpose. In addition to it, mothers' presence or absence of the use of dental floss did not disclos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ir children's number of toothbrushing for a prevention purpose and the number of visits to dental clinics for a prevention purpose.

Third, mother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did not presen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ir children's number of toothbrushing bu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was identified between mother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educational levels, monthly income levels and their children's number of visits to dental clinics for a prevention purpose.

Fourth, as a result of having conducte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mothers' knowledge of oral health, attitudes towards oral health, and demograph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and their children's attitudes towards oral health, Children of those mothers who visit dental clinics for a prevention purpose indicated a number of dental clinic visits for a prevention purpose along with a more number of toothbrushing. Children of those mothers who use dental floss also represented a more number of toothbrushing. Concurrently with this, the higher level the mothers are on, the keener interest their children take in oral health.